



## 강북신문



### 강북구의회 제148회 임시회 개회

유군성 의장, “헌신하는 의정활동으로 모든 역량 발휘를”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18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월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신묘년 새해 첫 회기를 시작하였다.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새해인사와 함께 “올 한해 모든 의원들이 헌신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강북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곧 다가오는

우리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뜨거운 가슴과 인간애를 발휘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복지혜택을 베풀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별로 행정부로부터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 서울포스트신문

### 강북구의회, 제148회 임시회 개회

강북구의회 의원들 전자표결시스템 시험작동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1월 18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월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신묘년 새해 첫 회기를 시작하였다.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새해인사와 함께 “올 한해 모든 의원들이 헌신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강북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에서는 박겸수 강북구청장의 2011년도 구정업무 보

고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별로 행정부로부터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의원들은 지난 2007년 도입해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 설치되어있던 전자표결시스템을 시험 작동을 실시했다. 강북구회는 회의 시 발생 되는 표결방법을 거수 또는 기립으로 표명해 왔으나 이번 전자표결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의사표명으로 회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전자표결시스템 기기를 시험작동 하고 있다.

## 강북신문



### 전자표결 시스템 시험가동 “이렇게 표결해요”

1월18일 오전10시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48회 임시회 1차본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이 전자표결 시스템을 시험가동하고 있다. 사진은 이순영 의원이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 이슈!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료위원회의 현장 스케치

## 삼각산중학교 배정문제, 학교의 수보다는 인구 과밀도를 참작해야 강북구청, 삼각산동 위장 전입자 조사위해 동 직원 동원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중 SK참교육학부모회에서 삼각산중학교 배정문제로 지난주 몇 일간 삼각산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했던 예민한 지역의 민원이 21일 행정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이영심)에서 다루어졌다.

### ◆'삼각산초 졸업생을 삼각산중 학교로 완전 배정하라'는 민원

학교배정문제 매우 괴롭다. 근본적으로 문제해결 안하면 아이들 하고 학부모에게 죄인이 되겠다. 상황이 다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도 지어주고 교실수도 늘려야 하는데 당장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가 보니까 구청정도의 기본적인 대응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교육청은 진짜 그렇게 안 하더라.

교실수를 늘리는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삼각산 중학교에서는 425명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반에 43명이 배정된다. 상상할 수가 없다. 한 반에 43명이면 아이들을 직시시킬 수 있는 일인데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한다. 그러더라도 아이들이 다 갈 수가 없다. 단지별로 싸움이 붙어서 괴롭다. 완전 배정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로서 교실 한 두 개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교무실에 교실 만들려고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선생님의 교무실로 사용하고 차량은 SK아파트에서 공간 제공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 기가 막힌 얘기다. 과도제한 때문에 더 이상 증축도 못하고 만약 교실을 늘리기 위해서 주차장에 가건물을 지을 때 교육청은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

▶최선 의원 : 삼각산중학교 주차장 내에 가건물을 짓는다면 학교교육지원경비로 지원 가능한가?  
▶유영채 교육지원과장 : 교육경비 28억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장, 학교 관계자들과 회의 해서 지원금 교부 결정이 났고 시달해야한다. 신퇴성의 문제로 교육지원경비로는 지원할 수 없다.

▶1학급을 늘리면 되는데 교육청의 인장은 아파트 밀집지역에 삼각산 중학교만 과밀이지 다른 곳은 과밀이 아니다 조금씩 늘려 나가면 된다는 행정편의적인 생각이다. 강북구는 학교수가 적죠?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료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다.

▶중학교까지는 괜찮으나 고등학교가 적다. 초·중·고 검토 결과 초·중학교는 강북구의 학생들을 수용 가능하나 고등학교는 2,000명 정도가 타구로 다닌다. 그래서 고등학교 유치가 절실하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한다. 학군을 인구 밀집도로 이해해야한다. 학군 전체를 놓고 1/N을 해서 안 된다. 학교 수와 평균 밀집도가 다르니까 인구 밀집도를 고려해서 학교를 만들고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11월에 관내 학교를 순시할 때 삼각산중학교에서 증설 문제가 나와서 교육청에 증설을 건의했다. 또 풍림아파트의 도로를 수용해주면 한 칸 늘려서 몇 층을 더 짓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고 검토해서 삼각산교육청에 건의했는데 교육청의 반대로 무산됐다.

▶장기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 주민들과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니까 구청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란다. 학교 배정문제로 인해 동사무소의 전 직원을 동원해서 위장 전입을 조사할 예정인데 교육지원과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 ◆영훈중학교가 국제중으로 전환돼서 삼각산, 송천동도 학교배정에 문제가 있다. 지역적으로 골고루 배려해야 한다.

▶이준수 의원 : 제가 당선되고 삼각산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삼각산중학교 뒤편에 사유지가 있어 증설 문제를 교육청에 건의한 적도 있는데 묵살되었다. 어떻게 보면 삼각산중 배정 문제는 한 동네 입장에서만 보는

이기적인 면도 있지만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기에 잘 해결되었으면 한다. 송천동 삼각산동의 학생들도 영훈중이 국제중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학교 배정이 더 멀리되어 힘들게 다니고 있다.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한 지역만을 위하지 말고 골고루 불평함이 없도록 지역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영채 교육지원과장 : 송천동 문제가 즉 옛날 미야동 지역도 있다. 뉴타운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개발은 안 되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다고 알고 있다. 지난번 회의할 때도 말했지만 중학교 신설 건의가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다.

### ◆성북교육청이 일처리를 어떻게 한다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다시 생각하자.

▶이영심 행정보건의료위원장 : 중학교가 강북구 전체로 보면 부족하지 않다. 근데 지금 중학교는 숫자상으로 부족하지 않으나 삼각산동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일처리를 하면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 문제가 지역이끼주의로 비쳐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먼저 삼각산중학교의 증축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한다. 또 중, 고등학교 신설 문제도 교육청을 압박해서 잘 해결해야한다.

▶유영채 교육지원과장 : 알겠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

# 강북구의회, 제14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 강남연 의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목표액 달성도

###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부담 없는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바람직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지난 19일 오전 10부터 제148회 임시회 정회 중 각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이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열)에서는 주민생활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 보고를 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나눔에 참여해서 조성된 기부금품을 저소득 소외계층에 적극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의 조성을 위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대해 ▶구분승 의원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서 조성된 기부금품의 배분계획 및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라고 물었다. 이에 강운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2011년도 목표액 목표인 175,000만원 현재 13,260만원이 모금이 돼서 약 7%를 달성했다.

3월달에 배분 예정으로 동에서 모금한 현금은 각 동으로 배분되고 물품은 구 자체에서 총괄해서 사회복지기관에 배분한다. 물품은 3월 이전에 배분할 예정이고 현금은 연차적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동단위로 현금배정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현금성금에 대한 동기유발에 주력하려고 한다. 연차적으로 얼마나 모이고 쓰였는지는 투명성을 갖고 집행과정을 공개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강남연 의원은 몇 년 전에는 쌀도 모였는데 지금은 쌀보다는 현금으로 5,000원 이상이라고 한다. 1,000~2,000원이라도 정성껏 내면 되는데 미안해서 못내는 사람도 있다. 보통 한 반에 10만원 정도 모금하는데 통장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당하냐? 모금하는데 각 동별로 경쟁도 시키는지? 등수에 들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는

있냐? 고 물자 강운규 과장은 지난 3년 동안 25개 자치구 중 연속으로 강남다음으로 2위를 했다. 느낀 점은 목표액을 많이 설정해서 2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부담감을 갖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액을 하향조정할 것을 청장님께 건의하겠다. 경쟁은 시키고 있지 않지만 몇 번 집을 방문해서 모금액을 채우려고 애쓰다보니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동별로 배분을 안 할 수는 없어 강북구의 현실에 맞춰 동별 목표액을 설정하여 추진하겠다.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는 없다고 하자 강남연 의원은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면 자존심 문제로 자제하고 내년에는 게시하지 않았으면 한다. 쌀을 내던 현금을 내던 알아서 하도록 해라. 강제성을 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문수 의원은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지만 도로의 장애인 보행권에 대해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어 도로 통행 시 장애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질문하자 구인회 국장은 현재 교통약자에 대한 협조가 잘 안 되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토목이나 도로공사를 할 때 조려에도 명시되었듯이 유관부서가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공문을 보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친환경 쌀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고 물자 강대형 여성가족과장은 권역별로 나눠서 4~5개의 단체를 직접 방문 할 것이나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린이집 시설을 방문해서 쌀을 채워주며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조사하겠다. 어린이에게 양질의 쌀이 보급되도록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 수렴을 하겠다. 이어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복지건설위원회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하는 모습

라는 질문에 강대형 과장은 민간, 가정보육시설은 인가가 동결되었고 국·공립민이 확충이 가능하다. 종교단체에서 부설로 어린이 집을 운영하면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보육시설에 속한다. 비록 민간이지만 자체가 국·공립에 포함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희 의원은 "여성정보센터 부지에 현충탑이 있다. 현충탑은 서울시 25개 구 중 우리구만 유일하게 있다. 현충탑을 솔밭공원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현충시설로 지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라는 질문에 강운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부구청장 업무보고 때에 언급이 됐고 솔밭공원이나 손병희 선생 묘역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구분승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 작년보다 8억이 삭감됐다. 2월부터 사업시행을 하는데 민원이 많다. 주민의 민원에 대해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황창오 생활보장과장은 2010년에는 1010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였으나 금년에는 100여명이

줄어든 913명이 신청했다. 건강보험료 및 소득을 조사한다는 소문 때문인 것 같다.

기초생계비 150% 이하 자는 502명으로 추출되어서 150%까지를 대상으로 잡으면 400여명이 탈락한다. 반2동에서 27명이 자진 사퇴하여 탈락자는 351명이다.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150%이하가 구청장 방침이다. 대상자는 작년과 똑같이 날짜수를 줄이지 않을 예정이다. 탈락자중 65세 이상이 275명, 65세 미만이 76명으로 노인일자리와 저소득층 공공근로지역일자리로 유도하겠다. 급여는 똑같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이럴 경우 예산이 5,900만원의 여유가 생겨 민원이 온다면 다 접수해서 정밀 조사 후에 예산잔액부분만큼 구제하겠다.

물론 노인복지과와도 상의를 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생활국 3개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4명의 소속직원들이 2시간 동안에 걸친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받고 산회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



# “동장 인사 소신과 원칙 지켜달라”

박성열 의원, 강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쓴소리



박성열 의원이 본회의에서 강북구의 인사문제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며 쓴소리를 하고 있다.

박성열 의원(한나라당)이 강북구가 지난 연말을 기해 단행한 인사를 두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10시에 열린 강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31일자로 실시된 강북구 인사에서 5개월여 된 동장과 3개월여 된 동장을 다시 전보발령시킨 내용을 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본청에서 움직이는 전보발령 인사는 큰 파장이 별로 없으나 동에서 움직이는 동장의 전보발령은 그 파장이 2만 3만여명의 동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며 “보편적으로 동장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이 통상적 관례로 행해 왔고 공무원 인사규정도 최소 1년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민들의 충격에 앞서 당

사자들은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라며 빠른 시일에 동장을 바꾼 사실이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소신도 원칙도 없는 황당무계한 인사”라며 “자당 위원들의 입김인지, 특수한 임무를 맡겼는데 말을 듣지 않았는지, 공무원 길들이기인지”를 묻고 “이러한 전보발령은 공무원 인사규정도 무시한 구청장의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무관부터는 서로 직책이 다를 뿐이지 고위공직자로서 동등한 예우를 갖추어줘야 마땅하다”라며 “향후에는 이런 인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 쓴소리가 치료약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 동장 전보발령에 인사규정 무시한 인사권 남용 주장

박성열 구의원...사무관부터 예우 갖추어야 마땅



박성열 의원이 동장의 전보발령에 대해 지적하고

강북구의회 박성열 의원이 지난 18일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구민을 우롱하고 있다

며 동장의 전보발령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박성열 의원은 강북구청 전여명의 공무원도 대부분 강북구민이라고 말하고 사인여천의 말과는 달리 구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실시된 강북구 인사에서 5개월여 된 동장과 3개월여 된 동장을 다시 전보발령시킨 내용을 두고 본청의 전보발령 인사는 큰 파장이 별로 없으나 동에서

움직이는 동장직을 수행하는 사무관의 전보발령은 그 파장이 2만 3만여명의 동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동장의 임기에 대해 통상적 관례를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자당 의원들의 입김이나?” “특수 임무에 대해 말을 듣지 않았는지?” “아니면 공무원 길들이기냐”며 공무원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무관부터는 고위 공직자로 동등한 예우를 갖추어야 마땅하다며 향후 이런 인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